

# 41

## 사랑하시는 자를 위한 징계

히 12:5~13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 145장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오늘 배울



1.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심을 압니다.
2. 징계를 받는 성도의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압니다.



□ 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 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 에 참예케 하시느니라 (히 12:8~10)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내 아들이 여호와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 3:11~12)

My son, do not despise the chastening of the LORD, Nor detest His correction; For whom the LORD loves He corrects, Just as a father the son in whom he delights. (Pr 3:11~12)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나 문장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 ② 그리스도인에게 징계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징계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태도를 적어 봅시다(히 12:5~6).
- ② 부모님께 받은 징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정리해 봅시다(잠 13:24, 히 12:9~10).

3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징계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 징계의 유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써 봅시다(잠 22:15, 29:17, 히 12:11~13).

4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해 분반에서 함께 교제해 봅시다(잠 29:17, 히 12:6).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23:4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시 94:1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잠 13:24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수

잠 22:15

---

---

---

---

---

---

---

---

목

잠 29:17

---

---

---

---

---

---

---

---

금

롬 8:28

---

---

---

---

---

---

---

---

토

히 12:11

---

---

---

---

---

---

---

---



##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어떤 소년이 친구의 물건을 도둑질하여 집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야단을 치기는 커녕 훔쳐 온 물건을 보고 기뻐하면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점점 더 큰 도둑으로 변해 갔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더 칭찬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성장하여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마침내 경찰에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소원으로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가까이 오자 그는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일찍부터 저에게 야단을 쳐 주셨더라면 이렇게 죽기까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질문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뇌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잠 17:8)”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뇌물 바치는 것을 속어로 ‘기름칠한다’고 하는데 이는 세상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법적으로 위배되는 그 어떤 행위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수고비를 준다든지 하는 것까지 뇌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고비를 줌으로써 더디게 할 일들이 조금 빨리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기준이 선한 양심입니다.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면 과감하게 끊어야 될 것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잠 16:8)**

이 말씀처럼 소득이 많지 않을지라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뇌물 받아 부자 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라면 법을 어기지 말고 청렴결백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회사원이라면 불량품인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서 납품을 받아준다든지 하는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면,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 146:3)**